

<PRNewswire> 세계 최고 수질연구 권위자 조안 로즈, 2016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

(스톡홀름 2016년 3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미국의 조안 로즈(Joan Rose) 교수가 2016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녀는 물 분야에서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정책 결정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침과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안 로즈 교수는 미시간주립대학 물연구소의 Homer Nowlin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평생을 수질과 공중 보건 연구에 바쳐온 수질 미생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수상 소식을 접한 그녀는 “지금까지 배출된 훌륭한 수상자들의 대열에 합석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는 21 세기에 가장 중요한 물 관련 문제들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수질 문제”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소감에서 “물 관련 미생물학, 수질 및 공중 보건 간의 관계는 이론적 및 실용적인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라며 “깨끗한 물과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변화를 반복하여 이를 공략할 수 있는 인물이 별로 없다. 독창적인 최첨단 과학 연구부터 연구 결과의 전문적인 배포, 효과적인 입법 로비, 관련 업계 종사자 지도 및 대중 인식 개선까지, 조안 로즈 교수는 이처럼 뛰어난 재능들을 접목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로즈 교수는 “나는 항상 공중위생 원칙, 즉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힘을 낸다”면서 “주요 장벽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물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만 해도 수십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IWI)의 소장 토그니 홀름그렌(Torgny Holmgren)은 “로즈 교수는 모든 인간과 수생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라며 “그녀는 훌륭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조안 로즈 교수는 수생 기생충인 와포자충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로서, 일찍이 1988년 물 공급 과정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와포자충 연구를 세계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는 후원자인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2016 세계 물 주간 중 8월 31일 왕립 시상식에서 조안 로즈 교수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 수상자 추가 정보: <http://www.siwi.org/swp2016>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WImedia>
- 트위터: [https://twitter.com/siwi\\_water](https://twitter.com/siwi_water) 해쉬태그: #stockholmwaterprize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

Box 101 87, SE-100 55, Stockholm, Sweden

전화: +46-8-121-360-00

팩스: +46-8-121-360-01

이메일: [siwi@siwi.org](mailto:siwi@siwi.org)

<http://www.siwi.org>

출처: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